

『산림경제』와 『임원경제지』의 비교 고찰*

조창록**

- I. 머리말
- II. 『임원경제지』의 16지별 인용
- III. 『산림경제』와 『임원경제지』의 목차와 내용
- IV. 맺음말-『산림경제』에서 『임원경제지』로

• 국문초록

본고는 홍만선의 『산림경제』와 유증임의 『증보산림경제』, 그리고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를 통해 조선후기 일용생활백과의 출현과 변화 발전에 대해 고찰해 본 것이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임원경제지』 인용서목에 나타나 있는 『산림경제』의 정체와 16지별 인용 횟수에 대해 검토해 보았으며, III장에서는 3종 생활 백과의 목차와 내용들을 서로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IV장에서는 3종 생활 백과의 내용 구성에서 보이는 변화 양상들을 정리해 보았다.

그 변화 양상이란 대개 다음의 3가지 방면에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이용후생의 도구들을 대폭 추가하였다는 점, 둘째 교양 있고 운치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한 지식을 대폭 추가하였다는 점, 셋째 생업 활동 및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7177)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수석연구원

재산 증식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을 대폭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즉 조선후기 3종의 생활백과는 가난을 미덕으로 받아들이고 도를 즐기는 ‘안빈낙도’의 삶이 아니라 사대부로서 품위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당시 사대부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삶에 대한 기대치와 전망까지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산림경제』, 『증보산림경제』, 『임원경제지』, 생활 백과, 변화 발전

I. 머리말

‘산림경제(山林經濟)’란 벼슬길이 막힌 선비가 자력으로 생계를 도모하는 일을 의미한다.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이 곧 산림 혹은 임원인 것이고, 그곳에서 생계를 도모하는 행위가 곧 경제이다. 즉 산림 혹은 임원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와 지침을 수합하여 기술해 놓은 것이 바로 『산림경제』이고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이다. 『산림경제』는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이 지은 책이고, 『임원경제지』는 서유구(徐有渠, 1764~1845)가 1839년 무렵 완성한 책으로 1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종류의 서책은 종래에 박물지 혹은 가정보감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고, 농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농서 혹은 종합농서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조선 시대 ‘일용생활백과’라고 할 수 있으며, 관련 지식들을 특정 주제 아래에 수합하는 방식으로 편성하였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일용유서(日用類書)’에 해당한다.

서유구는 그 서문에 해당하는 「예언」에서 『임원경제지』의 기본 취지와 편집 방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무릇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벼슬하거나 하지 않는 두 가지 길이 있다. 벼슬할 때에는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그 임무이고, 벼슬하지 않을 때에는 일을 해서 먹고 살며 뜻을 기르는 것이 또한 그 임무이다. 생각해보면, 세상을 구제하는 방도는 모두 정치와 교화에 관련되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니 원래 갖추어 기술해 놓은 책이 많다. 그러나 시골에 살면서 뜻을 기르는데 필요한 책은 모아놓은 경우가 드물다. 우리나라에는 겨우 『산림경제』 한 책이 있으나 내용 가운데 자질구레한 것이 많고 채록한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흔히 이 점을 흠으로 여긴다. 그래서 여기에 시골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대략 뽑아서 부문을 나누고 제목을 붙인 다음, 여러 서적을 수집하여 내용을 채워 넣었다.¹⁾

즉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벼슬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침서가 드물며 조선에서는 ‘산림경제’ 한 종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산림경제』는 자질구레한 내용이 많고 수록된 지식과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새로 자료를 수합하여 『임원경제지』를 편찬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홍만선의 『산림경제』는 간행되지는 못하였으나 민간에서 비교적 널리 읽혔으며, 이 과정에서 1767년경 유중임(柳重臨, 1705~1771)에 의해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로 개편되었고, 『산림경제초(山林經濟抄)』, 『산림경제보(山林經濟補)』 등 다소 정체가 불분명한 서책의 이름들이 전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산림경제』에 대해서는 일찍이 저자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으며, 선행 연구를 통해 그 저자와 전본(傳本), 내용과 전거서목(典據書目) 등이 밝혀지기도 하였다.²⁾

하여튼 이 종류의 서책들은 홍만선의 『산림경제』에서 시작하여 『산림경제초』, 『산림경제보』, 유중임의 『증보산림경제』 등을 거쳐서 『임원경제지』로 진화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먼저 서유구가 앞의 「예언」에서 ‘산림경제 한 책’이라고 한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얼마나 인용하였는지? 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경제』와 『증보산림경제』 그리고 『임원경제지』는 그 목차와 내용에 있어 어떤 변모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조선후기 일용생활백과의 출현과 변모 양상에 대해 논해 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경제』와 『증보산림경제』 혹은 『임원경제지』를 직접 비교 고찰한 선행 연구는 없는 형편이다.

1) 『임원경제지』 「例言」, “凡人之處世, 有出處二道. 出則濟世澤民, 其務也, 處則食力養志, 亦其務也. 顧濟世之術, 一應政教, 無非所需, 固多備述之書. 至於鄉居養志之書, 尠有哀集者. 在我邦, 僅有山林經濟一書, 然中多冗瑣, 所採亦狹, 人多病之. 故於此, 畧採鄉居事宜, 分部立目, 搜羣書而實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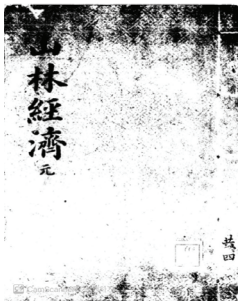
2) 富樫直次郎·三木榮, 「山林經濟考」, 『朝鮮』 262号, 朝鮮總督府, 1937; 신승운, 「해제」, 『(국역)산림경제 I ~ II』, 민족문화추진회, 1982 참조.

II. 『임원경제지』의 16지별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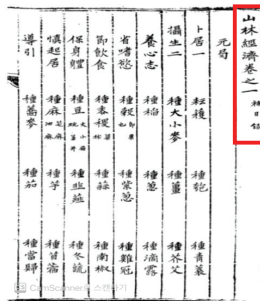
1. 『임원경제지』에서 인용한 『산림경제』

서유구는 『임원경제지』에서 모두 853종의 문헌을 인용서목으로 들고 있는데 그 자부(子部)에서 ‘增補山林經濟(本朝), 山林經濟補(本朝)’라고 하였을 뿐, 정작 홍만선의 ‘산림경제’를 들고 있지는 않다. 또 『증보산림경제』나 『산림경제보』를 누가 지은 것인지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증보산림경제』는 유증임이 지은 것으로 밝혀져 있으나 『산림경제보』는 저자는 물론이고 그 정체가 미상인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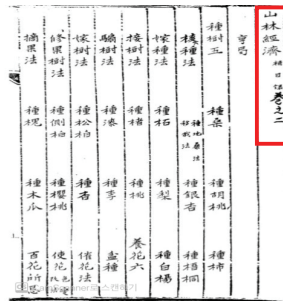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를 참조해 보면 지금 전하는 서적 중 ‘산림경제보’라고 제목을 붙인 서적은 없으나, 다만 장서각본 『산림경제』를 보면 표지는 ‘山林經濟’로 되어 있으나 권두의 목차 부분에서 ‘山林經濟補’라는 제목을 발견할 수 있다.³⁾ 따라서 이것이 『임원경제지』에서 인용한 『산림경제보』가 아닐까 짐작되기도 하는데, 그 실물을 보면 아래와 같다.



『산림경제』 표지



『산림경제』 권1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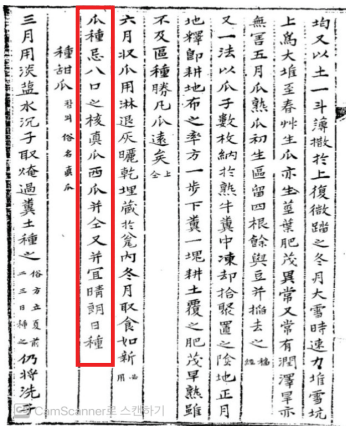
『산림경제』 권2 목차

위의 그림은 각각 장서각본 『산림경제』의 표지, 권1의 목록, 권2의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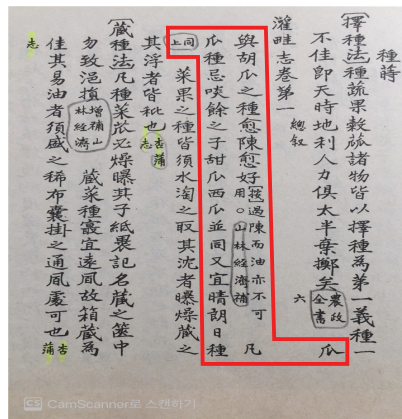
3) 신승운, 앞의 논문 주)7 참조.

록 부분이다. 먼저 왼쪽 표지를 보면, ‘山林經濟’라고 표기하였으나, 가운데 권1과 오른쪽 권2의 목록에서 첫 행을 보면 ‘補’라는 글자를 추가하여 그것이 원본을 보충한 『산림경제보』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 여기서는 생략하였으나 권3의 목록 첫 행에서는 ‘山林經濟補目錄卷之三’으로 권4에서는 ‘山林經濟補目錄卷之四’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장서각본은 ‘봉모당(奉謨堂)’ 인(印)이 찍혀 있는데, 봉모당은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으로 왕실에서 소장했던 도서이다. 당시 서유구 집안이 대를 이어 규장각의 운영과 실무를 담당했던 것을 감안하면, 서유구가 이것을 보았을 확률은 높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실제로 『임원경제지』에서는 『산림경제』를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가? 『임원경제지』에서는 『산림경제보』를 모두 224차례 인용하였는데 (2절 <표 1> 참조), 장서각본 『산림경제』에서 비교적 예시하기 좋은 대목 한 곳을 찾아서 『임원경제지』의 해당 대목과 서로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장서각본 『산림경제』 ‘種瓜’



『임원경제지』 「관휴지」 ‘種蒔’

위의 왼쪽 그림은 장서각본 『산림경제』 권1 치포(治圃)의 ‘종과(種瓜)’ 항목인데,⁴⁾ 그 마지막 행을 보면 “瓜種忌入口之核, 眞瓜西瓜并全. 又並宜

晴朗日種”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임원경제지』 「관휴지(灌畦志)」 권1 총서(總叙)의 ‘종시(種蒔)’ 항목인데,⁵⁾ 여기서는 “瓜與胡瓜之種, 愈陳愈好(按過陳而油亦不可用 ○山林經濟補). 凡瓜種忌啖餘之子, 甜瓜西瓜竝同. 又宜晴朗日種[同上].”이라고 하였다. 즉 오른쪽 그림에서 서유구가 쓴 안(按)⁶⁾을 제외한 부분이 바로 『산림경제보』를 인용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 대목이 통용본 『산림경제』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⁷⁾ 이것을 보면 “외 종류는 익으면 익을수록 좋다(瓜與胡瓜之種, 愈陳愈好)”라고 한 대목이 없으나, 일단 위의 그림에서 제시한 장서각본 『산림경제』를 서유구가 『산림경제보』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대목을 나란히 비교해 보면,

장서각본 『산림경제』: 瓜種忌入口之核, 眞瓜西瓜并全. 又並宜晴朗日種.
 『임원경제지』 「관휴지」: 瓜種忌啖餘之子, 甜瓜西瓜並同. 又宜晴朗日種.

라고 하여, 『산림경제』에서 “入口之核, 眞瓜”라고 한 구절과 『임원경제지』에서 “啖餘之子, 甜瓜”라고 쓴 부분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유구가 해당 대목을 인용하면서 표현을 고쳤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의 장서각본 『산림경제』가 곧 서유구가 인용한 『산림경제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서유구는 앞에서 살펴본 「예언」에서 ‘산림경제 한책’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홍만선이 지은 『산림경제』, 유증임이 증보한 『증보산림경제』, 그리고 저자 미상의 『산림경제보』를 딱히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임원경제지』에서 인용한 『산림경제보』는 장서각본 계열의 『산림경제』를 지칭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서유구가 『임

4) 『산림경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3-315, 권1 103a~104b.

5) 『임원경제지』(1), 보경문화사, 1983, 267b.

6) 안(按): ‘過陳而油亦不可用(너무 익으면 기름을 또한 쓸 수 없다)’라고 한 대목.

7) 『農書2 山林經濟』(吳漢根소장본), 아세아문화사, 1981, 146~148쪽.

원경제지』를 편찬하면서 대본으로 사용한 『산림경제보』가 지금의 장서각본 『산림경제』 바로 그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밖에도 통용본 『산림경제』와 장서각본 『산림경제』는 그 목차와 내용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정밀한 대조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임원경제지』의 16지별 인용 현황

이 절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산림경제』와 『산림경제보』, 그리고 『증보산림경제』가 『임원경제지』에서 실제로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선행연구의 『임원경제지』 개관서와 번역서 등에서 16지별 인용 서목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어 매우 도움이 된다.⁸⁾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리지」부터 「예규지」까지 16지별 인용횟수를 한군데 모아서 표로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임원경제지』의 16지별 인용횟수

	16志	산림경제	산림경제보	증보산림경제
1	本利志	0	3	9
2	灌畦志	0	18	60
3	藝畹志	0	4	25
4	晚學志	0	27	60
5	展功志	0	9	30
6	魏鮮志	0	0	0

8) 서유구 저, 정명현·민철기·정정기·전종욱 외 역, 『임원경제지-조선최대의 실용백과사전』,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12; 서유구 저, 임원경제연구소 역, 『상택지』, 풍석문화재단, 2019; 서유구 저, 임원경제연구소 역, 『섬용지1~3』, 풍석문화재단, 2016; 서유구 저, 임원경제연구소 역, 『유예지1~3』, 풍석문화재단, 2017; 서유구 저, 임원경제연구소 역, 『예규지1~2』, 풍석문화재단, 2019; 서유구 저, 임원경제연구소 역, 『이운지1~4』, 풍석문화재단, 2019 참조.

7	佃漁志	0	6	68
8	鼎俎志	0	46	196
9	瞻用志	0	11	40
10	葆養志	0	0	47
11	仁濟志	4	92	46
12	鄉禮志	0	0	0
13	遊藝志	0	0	4
14	怡雲志	0	5	19
15	相宅志	1	3	39
16	倪圭志	0	0	9
계		5	224	652

이상 위의 표를 보면, 『임원경제지』에서는 『산림경제』를 총 5회, 『산림경제보』를 총 224회, 『증보산림경제』를 총 652회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홍만선의 『산림경제』는 「인제지」에서 4번, 「상택지」에서 1번, 도합 5번을 인용하였을 뿐이다. 한편 『산림경제보』는 「위선지」·「보양지」·「향례지」·「유예지」·「예규지」에서는 전혀 인용하지 않았으며, 『증보산림경제』는 「위선지」와 「향례지」에서는 전혀 인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임원경제지』는 홍만선의 『산림경제』가 아닌 유중임의 『증보산림경제』와 저자 미상의 『산림경제보』를 인용 대본으로 한 것이 아닐까 짐작되며, 또 같은 맥락에서 조심스럽지만 「인제지」와 「상택지」의 『산림경제』는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서적에서 재인용한 것이 아닐까 여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서 이어지는 장에서는 『산림경제』와 『증보산림경제』, 그리고 『임원경제지』 3종의 목차와 내용상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Ⅲ. 『산림경제』와 『임원경제지』의 목차와 내용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산림경제』와 『증보산림경제』는 모두 몇 종의 이본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현재 공간되어 주로 읽히고 있는 오한근(吳漢根) 소장본 『산림경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古9100-10) 『증보산림경제』⁹⁾를 기준으로, 그 목차를 『임원경제지』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 2〉 『산림경제』와 『임원경제지』의 목차 비교

산림경제		증보산림경제		임원경제지
권1	卜居	권1	卜居	상택지
	攝生	권2	治農	본리지
	治農	권3	種樹	만학지
	治圃	권4	養花	예원지
권2	種樹	권5	養蠶·牧養	전공지·전어지
	養花	권6	治圃	관휴지
	養蠶	권7	攝生	보양지
	牧養	권8	治膳(上)	정조지
	治膳	권9	治膳(下)	정조지
권3	救急	권10	救荒(附辟寒·辟瘟·辟虫)	인제지
	治藥(上)	권11	家政(上)	항례지·유예지 이운지·예규지
治藥(下)	권12	家政(下)		
권4	救荒(附辟寒)	권13	求嗣(上/下)	보양지
	辟瘟			
	辟虫	권14	救急	인제지
	選擇	권15	增補四時纂要·四家占候·選擇	위선지
雜方	권16	雜方	유예지·이운지·상택지	

이상 3종 서적이 모두 16개 부문 혹은 지(志)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

9) 각각 『農書2 山林經濟』, 아세아문화사, 1981; 『農書3~5 增補山林經濟』, 아세아문화사, 1981.

징이며,¹⁰⁾ 『산림경제』는 4권 4책, 『증보산림경제』는 16권 1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산림경제』와 『증보산림경제』

우선 『산림경제』와 『증보산림경제』 두 종의 목차를 간략히 비교해 보면 그 순서에 약간씩 변화가 있으나, 복거(卜居)·섭생(攝生)·치농(治農)·치포(治圃)·종수(種樹)·양화(養花)·양잠(養蠶)·목양(牧養)·치선(治膳)·구급(救急)·구황(救荒)·벽온(辟瘟)·벽충(辟虫)·선택(選擇)·잡방(雜方)까지는 모두 동일한 제목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서로 다른 것은 『산림경제』는 권3~4에서 치약(治藥)을, 『증보산림경제』는 권11~13에서 가정(家政)과 구사(求嗣)를 독립된 부문으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산림경제』 「치약」 부문을 보면, 총론에 이어 각종 질병에 쓰이는 호마(胡麻), 여두(稷豆), 백편두(白扁豆) 등 176종 약재의 효능과 재배법, 채취 및 보관법, 수치법(修治法) 등을 소개하였고, 태을자금단방(太乙紫金丹方)·채약법(採藥法)·건약법(乾藥法)·복약법(服藥法) 등을 수록하여 두었다.¹¹⁾

10)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임원경제지』의 16지 편제와 관련하여 그것이 ‘서명응의 선천학에 바탕한 수의 구성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것으로 『산림경제』와 『증보산림경제』 혹은 허균의 『한정록』 등이 16부문으로 나누어진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민섭, 「서명응 일가의 박학과 총서·유서 편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0, 102~103쪽 참조.

11) 홍만선은 치약 편을 따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산림경제』, 「치약(상)」, 소서(小序), “질병에 대한 근심은 사람이면 누구나 피할 수 없으니, 약은 없을 수 없고 시골에 사는 경우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약재가 많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미리 재배하여 저장해 두고서 불시의 수요에 대비하지 않는다. 병이 들어 약을 써야 할 때에 이르러 서야 급작스레 찾게 되니, 이것은 7년 병에 3년 된 약썩을 구하는 격이다. 그러므로 치약법을 기록하여 제11편을 삼는다. (疾病之患, 人所不免, 藥餌不可缺, 而於鄉村, 尤切焉. 土產材料, 不爲不多, 人未嘗栽種收貯, 以備不時之需. 及至臨病用藥, 窘急求覓, 此猶七年之病, 求三年之艾也. 茲錄治藥之方, 爲第十一.)” 번역은

다음 『증보산림경제』 「가정」 부문을 보면, 상권에서는 택거지(擇居止)·선수신(先修身)·지국은(知國恩)·효부모(孝父母)·형제화(兄弟和) 등 23항목, 하권에서는 분가산(分家產)·보구명(保軀命)·상심택(相心宅)·주문공치가요법(朱文公治家要法) 등 13항목에 걸쳐 가정의 지침과 예절, 관혼상제와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¹²⁾ ‘가정 경영’을 하나의 독립된 부문으로 두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구사」에서는 집안의 대를 잇는 문제를 다루었는데, 총론에 이어 결혼과 임신, 육아에 필요한 약재와 각종 지식 등을 수록하였다.¹³⁾

이밖에 『산림경제』와 『증보산림경제』를 비교해 보면, 순서와 분량상의 변동이 있을 뿐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러한 내용들은 『임원경제』에 와서 그 내용이 대폭 확장되어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거나 별개의 지로 독립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고전번역원 DB를 참조하여 수정한 것이다.

- 12) 유중임은 가정 편을 따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증보산림경제』, 「가정(상)」, 소서, “한 집안이 잘되고 못 되고는 오로지 가장에게 달렸으니 책임이 막중하다. 집안일이란 아주 복잡하므로 모든 일을 반드시 사리대로 처리하여 조금도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 무슨 일이든 미리 생각해서 잘 조치해야만 집안이 화목하고 질서가 잡혀 모든 일이 잘된다. 한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금방 망하게 되니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에 집안을 운영하는 요점을 조목별로 적는다. (一家興衰, 專屬家長, 其爲責任, 顧不重耶. 家務至多百事, 必循理應接, 少勿違逆. 先事而慮之, 施措精密, 然後家中雍肅, 諸務畢舉, 一有差失, 破敗立至, 可不懼哉. 茲錄家政條綱.)” 번역은 유중임, 『산림경제』, 민족문화추진회, 1997, 9쪽을 참조하여 수정한 것이다. 이 책은 제목이 ‘산림경제’로 되어 있으나, 『증보산림경제』를 대본으로 한 것이다.
- 13) 유중임은 구사 편을 따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증보산림경제』, 「구사」 소서, “무릇 사람의 한 몸은 먼 옛날로부터 조상의 기를 나누어 받아 면면히 이어져 오늘에 이른 것이니, 내 몸을 돌아다보면 어찌 귀중하지 않겠는가? 사람에게 자식이 있는 것은 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아서 …… 뜬 구름 같은 세상에서 사람이 밤낮으로 하는 일 가운데 대를 이을 자식을 구하는 것보다 큰 게 무엇이 있겠는가? (凡人之一身, 粵自上古, 分氣於祖宗, 綿綿延延, 至於今日. 顧吾此身, 豈不貴且重乎. 人之有子者, 如木之有實 …… 浮生之日夜經營於世者, 孰有大於求嗣耶.)” 번역은 『산림경제』 217쪽을 참조하여 수정한 것이다.

2. 『증보산림경제』와 『임원경제지』

『임원경제지』는 113권 54책에 이르는 거질로, 16권 12책의 『증보산림경제』와 각각의 부분들을 대칭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특히 의학 부문인 「인제지」는 28권 14책으로 글자 수로 보면 『임원경제지』의 44%를 차지하는데, 이는 당시에 통용되던 의서를 거의 대부분 인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개는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이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표 2> 『증보산림경제』의 목차 순에 따라 내용을 비교하면서 각각의 차이점들을 논해 보기로 한다.

권1의 ‘복거’는 집의 위치와 택지의 조건 및 환경 등에 대해 논한 것이다. 『임원경제지』의 「상택지(相宅志)」가 이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팔역명기(八域名基), 명기조개(名基條開), 명기품제(名基品第)를 따로 두어 전국의 명당들을 소개하고 품평한 것이 특징이다.

권2의 ‘치농’은 각종 농사법과 종자 심는 법, 기곡(祈穀)·택종(擇種)·수분(收糞)·경파(耕播)·종도(種稻)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지식을 기술한 것이다. 이 내용들은 「본리지(本利志)」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농지제도[田制]와 양전법(量田法)에 대해 해설을 수록한 점, 곡명고(穀名攷)와 오해고(五害攷)를 따로 마련한 점, 전가역표(田家曆表)를 수록한 점, 농기구와 수리(水利)를 중시하여 농기도보(農器圖譜)와 관개도보(灌溉圖譜)를 새롭게 추가한 점 등이 주목된다.¹⁴⁾

권3의 ‘종수’에서는 수목 재배 기술과 관련하여 재화잡법(栽花雜法)·핵종법(核種法)·기종법(技種法)·삽수잡법(插樹雜法)·삽접법(插接法)·요

14) 양전법과 수리, 농기구와 수차 등에 대한 지식은 서유구 집안의 가학이라고 할 만한 것으로 서호수의 『해동농서』로 부터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창록, 「『해동농서』 이본과 『임원경제지』로의 수용 양상」, 『한국실학연구』 38호, 2019, 203~207쪽 참조.

접법(腰接法)·근접법(根接法)·탑접법(搭接法)·첩접법(貼接法) 등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밤·대추·배·감·호두·은행 등의 종수법(種樹法)을 총 71항목에 걸쳐 설명하였다. 이 내용들은 「만학지(晩學志)」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는 총서(總叙)에 이어 과류(果類)·나류(蓏類)·목류(木類)·잡류(雜類)로 구분하여 종류를 추가하였고, 잡류의 마지막에 ‘연초(烟草)’를 넣은 것이 특이한 점이다.

권4의 ‘양화’에서는 전원생활에 필요한 화초 재배법, 화초의 종류, 그 종식(種植)과 분종(盆種) 최화법(催花法) 등을 설명하였는데 37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예원지(藝畹志)」에 해당하는데, 총서에서 파종법과 재배법 등을 기술하였고, 이어 50종의 화류(花類)와 15종의 휘류(卉類)를 소개한 다음 마지막에는 화명고(花名攷)를 두어 꽃 이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권5의 ‘양잠’에서는 누에 기르는 방법을 17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했고, ‘목양’에서는 소·말·돼지·양·닭·물고기·벌 등 각종 가축, 어류, 조류, 곤충류를 사육하는 방법과 치료법 등에 이르기까지 총 118항목에 대해 기술하였다. 『임원경제지』에서는 이 중에서 ‘양잠’을 저(苧)·마(麻)·갈(葛) 등과 함께 「전공지(展功志)」로 독립시켰으며, 마지막에는 잠상도보(蠶桑圖譜)와 방직도보(紡織圖譜)를 두었다. 또 목양에서는 특히 양어를 어업 일반으로 확대시켜서 「전어지(佃漁志)」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민물과 바다 고기를 아우르는 ‘어명고(魚名攷)’를 추가하였다. 이는 특히 서유구가 벼슬에서 물러나 임진강 가 ‘난호(蘭湖)’에 머무를 때 저술한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권6의 ‘치포’에서는 잡법(雜法)을 위시하여 수박·참외·외·박 또는 마늘·생강 등등 소재 일반에 걸쳐 심는 법, 재배관리법 또는 이재법(移栽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은 「관휴지(灌畦志)」에 해당하는데, 총서에 이어서 소류(蔬類)·나류(蓏類)·약류(藥類)로 구분하였고 마지막 약류에서는 ‘인삼(人蔘)’ 항목을 따로 두어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하

였다. 이밖에 ‘치포’의 소서(小序)에 나오는 ‘정조(鼎俎)’라는 단어가 『임원경제지』의 8번째 지인 ‘정조지(鼎俎志)’의 제목으로 쓰이고 있는 점 또한 흥미롭다.

권7의 ‘섭생’은 병을 물리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보양(保養)과 복식(腹食)의 방법을 다룬 것으로 총론에 이어 양심법(養心法)·생기욕(省嗜慾)·절음식(節飲食)·보신체(保身體)·신기거(愼起居)·수련요약(修練要約)·복식제방(服食諸方)으로 구분하였고, 마지막에는 약명(藥名)과 종덕(種德) 항목을 두었다. 이 내용은 「보양지(葆養志)」에 해당하는데, 총서에 이어 정기신(精氣神)·기거음식(起居飲食)·수진(修真)·복식(服食)·수친양로(壽親養老)·구사육영(求嗣育嬰) 항목을 두었으며, 마지막에는 양생월령표(養生月令表)를 수록하였다.

권8~9의 ‘치신’은 음식과 요리에 관한 것으로 그 재료를 마련하는 치포(治圃)·종과법(種果法)·목축·양어 등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과실의 보관, 채소의 건조, 어육을 찌는 법, 술 빚기, 장 담그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지식들을 기술하였다. 이 내용은 『임원경제지』의 「정조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음식 재료에 대해 개괄한 식감찰요(食鑑撮要)에 이어 조리방식과 역할에 따라 취류지류(炊鑪之類)·전오지류(煎熬之類)·구면지류(糗麪之類)·음청지류(飲淸之類)·과정지류(菓釘之類)·교여지류(咬茹之類)·할팽지류(割烹之類)·미료지류(味料之類)·온배지류(醞醅之類)·절식지류(節食之類)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권10의 ‘구황’은 흉년으로 기근이 들었을 때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나열하고, 부록으로 벽한(辟寒)·벽온(辟瘟)·벽충(辟虫) 대책에 대해 논한 것이다. 이 내용들은 「인제지(仁濟志)」의 후반부에 나오는 비급(備急)과 구황에 분산하여 수록되었다.

권11~12 ‘가정’은 앞 절에서 소개하였듯이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임원경제지』의 해당 지를 적시하기 어려우나, 대개 「향례지(鄉禮志)」·「유예지(遊藝志)」·「이운지(怡雲志)」·「예규지(倪圭志)」 등에

해당한다.

권13의 ‘구사’는 앞 절에서 소개하였듯이 출산과 육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양지」의 ‘구사육영(求嗣育嬰)’ 항목에 수록하였다.

권14의 ‘구급’은 질병의 예방법과 구급 처치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자액사(自縊死)·익수사(溺水死)·동사(凍死)·입정사(入井死)·졸사(猝死)·신선태을자금단방(神仙太乙紫金丹方)등 137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이 내용은 「인제지」에서 구급 의학에 대해 다루고 있는 ‘비급(備急)’에 해당한다.

권15의 증보사시찬요(增補四時纂要)/사가점후(四家占候)/선택(選擇)은 농사에 필요한 기후 예측과 길일 선택 등에 관한 것이다. 이 내용은 「위선지(魏鮮志)」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는 후세(候歲)와 후풍우(候風雨)로 구분하여 기후와 비바람을 예측하는 일에 대해 기술하였다.

권16의 ‘잡방(雜方)’은 조필(造筆)·조지(造紙)·세연(洗硯)·등촉(燈燭) 등 문방 도구와 잡다한 생활 지식, 「동국산수록(東國山水錄)」 등을 광범하게 수록하였다. 이 내용은 대개 「유예지」·「이운지」·「상택지」 등에 해당한다.

IV. 맺음말- 『산림경제』에서 『임원경제지』로

이상으로 홍만선의 『산림경제』에서 유중임의 『증보산림경제』, 그리고 『임원경제지』로 이어지는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생활백과 3종의 목차와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원래 홍만선의 『산림경제』는 4권 4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임원경제지』에 와서 113권 54책의 거질로 변모하였으니 그 분량에 있어서 약 28배가 늘어난 셈이다. 이렇듯 『임원경제지』는 한국과 중국은 물론 한역된 서양서와 일본 서적까지 포함하는 당대 지식의 총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만하다. 이처럼 그 분량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홍만선이나 유증임에 비해 영·정조대 국왕의 측신 집안으로 국가 정책을 주도하고 영예로운 퇴임을 하였으며 장서가로 유명했던 저자 서유구의 입지와 견문에서 오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3종 생활백과는 기본적으로는 ‘벼슬길이 막힌 선비가 자력으로 생계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모은 것이지만,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이 점에 대해 논해 보는 것으로, 본고의 마무리를 대신하고자 한다.

그 변화는 첫째, 각종 도보(圖譜)를 활용하여 이른바 ‘이용후생의 도구’들을 대폭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본리지」의 농기도보와 관개도보, 「전공지」의 잠상도보와 방직도보, 「전어지」의 수렵 및 어로 도구 등에서 잘 드러나는데, 특히 「섬용지」 서문을 보면 국내에서 쓰는 생활용품의 조약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모든 생활용품들이 우리나라의 것은 조약함이 이와 같으니, 하는 수 없이 이웃 나라에서 가져다가 쓰게 되는 것이다. 북경에서 물건을 사 오고 대마도에서 무역을 해 오는 일이 이리하여 성행하고 있다. 아,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중국을 우러르고 의지하여 기술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당히 서로 대등한 예를 행하는 나라이면서 일개 섬나라에서 수입하는 것을 달갑게 여겨서야 되겠는가? 이 지를 읽는 독자들이여! 무언가 개탄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¹⁵⁾

위와 같이 서유구는 국내에서 쓰이는 생활용품의 조약함에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조선의 농기구와 방직 도구, 건축 제도와 벽돌 사용 등에 언급하고 있다. 즉 이는 산림에 은거한 선비가 단순히 자급자족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에 걸친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15) 「섬용지」 서문, “凡此贍用之物, 本土之粗劣, 如是也. 故不得不資於鄰而欣助. 燕都行貨, 馬島貿易, 於茲興焉. 嗟乎, 我國自古仰賴於中華, 其技藝之不及固也, 誰謂以堂堂相亢之國, 而甘輸於海中之醜乎. 嗟夫, 讀是志者, 其有所興慨者與.”

있다. 이러한 의도에서 『임원경제지』는 농업을 위주로 하면서도 방직·목축·어업 등에 대해서도 채록 가능한 거의 모든 지식을 수합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임원의 선비가 과연 이 많은 지식과 정보가 필요할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대부로서 교양 있고 운치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한 지식들을 대폭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유예지」의 서화·음악, 「이운지」의 문방(文房)·골동(古董)·금석(金石)·도서(圖書), 여행용품 등에서 뚜렷이 드러나는데, 특히 「이운지」 서문에서는 옛날의 은자에 대해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옛날의 이른바 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변란을 당하여 할 수 없이 그렇게 산 것이다. 만약 까닭도 없이 인륜을 외면하고 몰래 달아나 은벽(隱僻)한 것을 찾는 경우라면 내가 거기서 취할 것이 없다. 기산(箕山)에서 표주박으로 물을 떠서 먹었다는 허유(許由)의 이야기와, 한음(漢陰)에서 자공(子貢)이 오이에 물을 주는 은자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반드시 중장통(仲長統)의 「낙지론(樂志論)」에서와 같이 한 연후에야 비스무리한 경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위의 글을 보면 서유구는 표주박 물을 마시고 오이를 가꾸는 옛날 은자들의 이야기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중장통의 「낙지론」에서 말한 것처럼 한 뒤에야 임원의 삶을 제대로 누렸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다. 참고로 여기서 중장통의 「낙지론」이란 세속을 벗어나 좋은 밭과 넓은 집, 산과 냇물, 채소밭과 과수원, 수레와 배, 심부름꾼 등을 갖춘 안락한 삶을 묘사한 글이다.¹⁷⁾ 즉 이런 맥락에서 「유예지」의 서화·음악, 「이운지」의 문방·골동·금석·도서, 여행용품 등은 교양과 취미

16) 「이운지」 서문, “如古所謂隱者, 是當其變而不得已也. 若無故而外人倫, 潛遜素隱也, 吾無取焉. 如箕山之飲瓢, 漢陰之灌瓜, 是信者與. 吾不知焉. 必若仲長氏之樂志, 而後可以觀髣髴也.”

17) 서유구 저, 임원경제연구소 역, 『이운지1』, 77쪽 주석4) 참조.

생활을 위한 지식과 정보들을 수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임원경제지』에서 추구한 임원의 생활은 옛날의 은자들처럼 곤궁한 삶을 편안히 여기며 도를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임원의 넓은 주거 공간에서 교양 있게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생업 활동 및 재산 증식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을 대폭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16지 맨 마지막의 「예규지」 전체가 이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화식(貨殖)에서 장사(貿遷)와 재산 증식(孳殖), 부동산과 동산의 관리(置産), 사람 부리는 법(任使) 등을 보면 부지런함과 절약을 강조하는 종래의 그것과는 다른 재물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태도 혹은 인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그 서문에서 서유구는 ‘자공(子貢)이 사고파는 일로 이익을 얻은 것이 그의 현철함에 무슨 장애가 되었으며, 조기(趙岐)가 떡을 팔아 생계를 꾸린 것이 그의 훌륭한 학식에 무슨 방해가 되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대부들은 고상함을 스스로 표방하여 장사하는 것을 비루한 일로 여기니 고투하도다! 혹 궁벽한 시골에서 스스로 수양하는 사람 중에 이처럼 빈궁한 이들이 많으니, 부모가 굶주리고 떠는 것도 모르고, 처자식의 원망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 고상하게 성리(性理)를 논하곤 한다. 이 어찌 사마천이 부끄럽게 여긴 일이 아니겠는가?¹⁸⁾

위의 글을 보면, 서유구는 곤궁한 삶을 수궁하면서 그저 성리만 논하는 것은 『사기』 「화식열전」을 쓴 사마천이 부끄럽게 여긴 일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종래의 산림처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참고로 서하(西河) 임희성(任希聖, 1712~1783)이 병술년(1776)년에 쓴 『증보산

18) 「예규지」 서문, “我邦士大夫, 高自標致, 例以販賣爲鄙事, 固然矣. 或如窮鄉自修, 多貧婁之徒也, 不知父母之飢凍, 不顧妻孥之詈謫, 而攢手支膝, 高談性理, 豈非史遷之所恥乎.”

림경제』의 서문을 보면, 산림처사의 삶을 ‘지렁이처럼 마른 흙을 먹고 누런 흙탕물을 마시는 존재’에 비유하고 있다.¹⁹⁾ 이 경우는 산림처사의 곤궁한 삶을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결국 『산림경제』와 『임원경제지』는 모두 산림처사의 이처럼 곤궁한 삶을 개선 혹은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목표가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조선후기에 나타난 『산림경제』와 『증보산림경제』, 그리고 『임원경제지』로 이어지는 3종 생활백과는 기본적으로는 ‘벼슬길이 막힌 선비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도’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난을 미덕으로 받아들여 편안히 여기고 도를 즐기는 이른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에 대한 회의와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산림의 곤궁한 생활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생업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임원경제지』의 「이운지」나 「유예지」에 수록된 내용들을 보면 당대 사대부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삶에 대한 기대치와 전망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 『증보산림경제』 「서문」, “이제 대개 산림에 거처한다는 것은 곤궁하고 천한 자의 일이다. 나무와 돌, 새와 짐승을 짝하는 것이니 도회에 살면서 귀하고 뜻을 얻은 자들과 비교해 보면 그 형세가 크게 다르니, 예로부터 성현들이 뜻을 펴는 일에 대해서는 천하 사람들과 선을 함께 하여 말을 갖추어놓지 않은 것이 없다. 저 죽는 날까지 산 속에 숨어사는 자들은 또한 지렁이처럼 마른 흙을 먹고 누런 흙탕물을 마실 뿐인 것이다. (今夫處在山林, 窮且賤焉者之事也. 木石鳥獸之爲伴, 較乎居城市, 而貴而達者事, 若勢迥然有不相同. 從古聖賢於達, 則兼善天下言之無不備矣. 彼其終身伏匿堪巖之下者, 亦非若蚯蚓食槁壤飲黃泉而已也.)”

· 참고문헌

<자료>

- 『農書2 山林經濟』, 아세아문화사, 1981.
『農書3~5 增補山林經濟』, 아세아문화사, 1981.
『山林經濟』,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3-315
서유구, 『林園經濟志』, 보경문화사, 1983.
서유구 저, 임원경제연구소 역, 『상택지』, 풍석문화재단, 2019.
_____, 『섬용지1~3』, 풍석문화재단, 2016.
_____, 『유예지1~3』, 풍석문화재단, 2017.
_____, 『예규지1~2』, 풍석문화재단, 2019.
_____, 『이운지1~4』, 풍석문화재단, 2019.
유중임, 『증보산림경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奎7676.
유중임, 『산림경제』, 민족문화추진회, 1997.

<연구논저>

- 서유구 저, 정명현·민철기·정정기·전종욱 외 역, 『임원경제지-조선최대의 실용백과사전』,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12.
신승운, 「해제」, 『(국역)산림경제 I~II』, 민족문화추진회, 1982.
조창록, 「『해동농서』 이본과 『임원경제지』로의 수용 양상」, 『한국실학연구』 38호, 2019.
한민섭, 「서명응 일가의 박학과 총서·유서 편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富樫直次郎·三木榮, 「山林經濟考」, 『朝鮮』 262号, 朝鮮總督府, 1937.

A Comparative Study of *Sanlimgyeongje* and *Imwongyeongjeji*

Jo, Chang-Roc*

This paper examines the emergence and changes of daily-life encyclopedias in the late Joseon Dynasty, based on the comparative studies of *Sallim-gyeongje* (Farm Management; 山林經濟) by Hong Man-seon, *Jeungbo-sallim-gyeongje* (Revised and Augmented Farm Management; 增補山林經濟) by Yu Jung-rim, and *Imwon-gyeongjeji* (Essays on Rural Life and Economy; 林園經濟志) by Seo Yu-gu. To this end, in Chapter 2, I reviewed the number of citations of *Sallim-gyeongje* in the list of references of *Imwon-gyeongjeji*. In Chapter 3, I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able of contents and the contents of the three kinds of encyclopedias. Lastly, in chapter 4, I summarized the aspects of changes with regard to the contents of the three different encyclopedias.

The newly added contents are the following three: various tools and household items; knowledge related to hobbies and leisure; and knowledge of how to create and accumulate wealth. These changes represent the gentry's desire for a higher quality of a descent living and the active pursuits of wealth, departing from the traditional style of living a content life amid poverty and taking pleasure in cultivating morally.

* Chief researcher of East Asian Studies in Sungkyunkwan University

Key words: *Sallim-gyeongje*, *Jeungbo-sallim-gyeongje*,
Imwon-gyeongjeji, daily-life encyclopedia,
emergence and changes

필자 E-Mail: rene99@hanmail.net

투고일: 2020년 04월 22일 / 심사완료일: 2020년 05월 04일 / 게재확정일: 2020년 05월 04일

